‘과거보러 가던 길’ 따라 전국 일주

춘천교대 동아리 ‘여행에 미친 사람들’ 영남대로·호남대로 보름만에 답사

◇ ‘여행에 미친 사람들’ 이 지난 2월 호남대로 답사에 나서면서 전남 해남에서 떠 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왼쪽부터 박찬수, 박재웅, 심지연, 원종환, 이상걸, 채현정, 김현정.

걸어서 옛 선비들이 과거보러 가던 길을 답사하는 대학생 동아리가 있다.

‘여행에 미친 사람들’. 줄여서 ‘여미사’로 자칭하는 이들은 춘천교대생들로 벌써 영남대로와 호남대로를 일주했다. 영남대로는 부산, 대구 지역 선비들이 한양(서울)으로 과거보러 갈 때 즐겨 사용했던 도보코스. 대구~구미~문경~충주를 거쳐 한양에 이르렀던 길을 가리킨다. 호남대로는 광주~전주~공주~청주~충주~한양으로 이어지는 도보길이다.

고증을 통해 남아있는 옛 발자취를 답사중인 이들이 옛 선비들과 다른 점은 여행장비가 현대식으로 바뀌고, 주먹밥이 라면이나 토스트로 대체되어 예전에는 1개월내지 3개월이 소요됐던 길을 13일, 17일만에 주파한다는 점.

“한국에서 유학중인 일본인(도도요끼 히로시)이 우리의 옛 길을 되밟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 게 계기가 됐죠.”

이 동아리의 최고 맏형격인 박찬수(25)씨는 “이 길을 답사하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공부하는 지를 실감하게 된다”며 “학업에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수 없이 다잡게 된다”고 했다. 곁에 있던 이상걸(22)씨는 “이 먼 길을 줄곧 걸어야 했다고 생각하니, 중도에서 포기한 선비들이 오죽 많았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야담에서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과거보러 가는 선비와 주막의 주모간의 에피소드가 모두 있을 법한 얘기로 실감이 피어난다”고 했다. 차기 회장직에 예정된 박재웅(21)씨는 “걸으면서 보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는 걸 절감하게 된다”며 “우리 강산에 이렇게 많은 볼거리와 유적이 있는 지 모르고 살아왔던 게 창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들의 목표는 0도보상경코스를 모두 답사하는 것. 모두 8개 코스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중 2개는 북한에 있어 남한에는 현재 6개만이 남아있다고 알려준다. 이와 함께 요즘들어 300m도 걷기 싫어하는 초등학생들도 한나절이면 충분한 ‘도보여행코스’를 만들어 다가오는 어린이 날에 보급하겠다고 예비초등교사다운 자세를 보였다. 오는 7월에는 지난 두 차례의 답사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1인당 10만원씩 갹출해 통영에서 한양으로 이르던 영남좌로를 답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즘 춘천일원에 소문이 나면서 입회신청을 해오는 대학생수가 300명에 이르지만 아직은 타대학의 신입회원가입은 사양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회원수 22명. 여학생이 14명에 이른다.

/金昌祐기자 cwkim@chosun.com

민예품 174점 수록 ‘강원의 美’ 발간

유용태 고미술연합회장

강원도 고미술품의 발굴과 고증은 물론, 소장품 수에 이르기까지 단연 최고봉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용태(庾容泰·70·강원고미술연합회장·사진)씨가 강원인의 독특한 삶이 녹아있는 민속품과 민예품을 고찰한 ‘강원의 미(美)’2집을 발간했다.

일제시대 고미술품 수집가였던 선친(星園 庾錫祚)의 영향으로 어릴쩍부터 고미술품 발굴을 위해 전국을 누볐던 유씨가 이번에 소개하는 강원민예품은 모두 174개 종류. 안방에서 지근거리에 놓고 애용하던 요강에서부터 부엌에서 사용하던 놋상, 탕약틀, 풀맷돌, 통나무고지박, 막국수틀, 쥐덫, 그리고 갈대삿갓, 구리가락지 등 액세서리까지 망라되어 있다.

유씨는 “진귀한 고려청자는 바닷속에서 한꺼번에 몇백점씩 인양되기도 하고 고려말의 백자도 옛가마터에서 몇십점씩 수집하기도 했지만, 기층 서민들의 토속적인 생활상을 어림잡게 하는 민예, 민구품은 1점을 발굴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일쑤였다”며 그간의 수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유씨는 이 책에서 사진 500여장을 곁들여 각 민예품의 유래와 간단한 사용례, 재질, 제조공정 등을 소개, 상당수는 강원도 특유의 관광토속상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다. 유씨는 지난 93년 1집을 펴냈었다.

/金昌祐기자 cwkim@chosun.com

空士 비행교수 3명 퇴임

박영기·강철수·원철희 고별비행

공군사관학교 비행(飛行)교육 담당 교수 3명이 동시에 고별비행을 갖고 정년 퇴임했다. 공사 제212 비행교육대대 박영기(朴榮起·58·공사 16기)-강철수(姜哲洙·58·〃)-원철희(元喆喜·58·공사 17기) 교수는 28일 오후 T-41 공군훈련기를 타고 청주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상공에서 1시간 가량 고별비행을 가졌다.

이날 비행에는 올해 공사를 졸업한 여군 등 새내기 조종사 3명이 함께 참가, 베테랑 선배들로부터 편대비행 방법 등에 대해 지도를 받았다. 또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후배 장교들은 선배들이 마지막 비행교육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자 꽃다발을 건네며 우렁찬 거수경례로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다.

이날 퇴임한 교수들은 68~69년 공사를 졸업한 뒤 공군에서 수송기,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대령으로 예편, 후배 양성을 위해 10여년간 공사에 재직해 왔다. 특히 박교수는 30여년간 무려 7285시간을 비행, 공군 현역 조종사 가운데 2번째 최장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劉泰鍾기자 tjyouh@chosun.com

◇고별비행을 마치고 후배장교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강철수-박영기-원철희 교수(왼쪽부터).

"환영합니다" 2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일본인 홈 스테이 및 과학문화탐방’ 행사에서 대전을 찾은 일본인 요꼬다 모자(母子)를 민박가정 박정란(오른쪽)씨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일본인 44가정 84명은 대전의 44개 민박가정에서 묵으면서 과학공원· 연구단지등을 둘러본 뒤 31일 출국한다. /全宰弘기자 jhjun@chosun.com

보은에 ‘마루타 전시관’

한국비림원 5월 개관

충북 보은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쳤던 일본 731부대(일명 이시이(石井) 부대) 관련 사진자료와 유물을 갖춘 ‘마루타 전시관’이 들어선다.

사단법인 한국비림원(이사장 허유·許由)은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옛 동정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건립 중인 비림박물관에 330㎡ 규모의 마루타 전시관을 조성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오는 5월초 개관되는 전시관에는 731부대 막사와 감옥, 화장터, 화생방 실험실, 사격장 등을 촬영한 사진 200여점이 전시된다.

또 731부대의 실상을 알려주는 15분짜리 영상물을 상영하고, 당시 생체실험에 사용하던 고문 틀, 가위, 칼, 주사기, 실험복 등 100여점의 유물을 실물과 똑같은 형태로 복제해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품은 허 이사장이 지난해 중국 하얼빈(哈爾濱)에 있는 ‘일본 관동군 731부대 죄증(罪證) 진열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것이다.

허 이사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바로 알리고 생생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게 됐다”며 “세계 각국의 어패류와 산호 등 해양유물도 함께 전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劉泰鍾기자 tjyouh@chosun.com

택시 18% 인상

충북 기본요금 1500원

충북지역 택시요금이 평균 18.39% 인상된다. 충북도는 27일 오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주행거리 2㎞ 이상부터 적용되는 주행요금은 216m당 100원에서 176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때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52초당 100원에서 42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조정된 요금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劉泰鍾기자

금융기관 방범대책 허술

대전·충남 17%만이 경비인력 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금융기관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 충남지역 금융기관들의 자체 방범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관내 총 1543개 금융기관 가운데 17.6%인 272개 금융기관만이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을 두고 있으며, 현금수송시 전문 호송업체에 호송을 의뢰하는 금융기관은 7.7%에 그치고 있다.

또 폐쇄회로TV(CCTV)의 경우 출입구에 설치된 곳은 8.8%(1543개 중 136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곳은 7.9%(730개 중 58개), 외부 비치 현금자동지급기에 설치된 곳은 11.8%(450개 중 5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대부분의 CCTV가 아날로그 방식이라 디지털 방식에 비해 화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범죄예방을 위해 자체 방범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任度赫기자 dhim@chosun.com

道義 새마을여인상 홍성 조병혜씨

충남새마을부녀회(회장 한창숙)는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도의(道義)새마을여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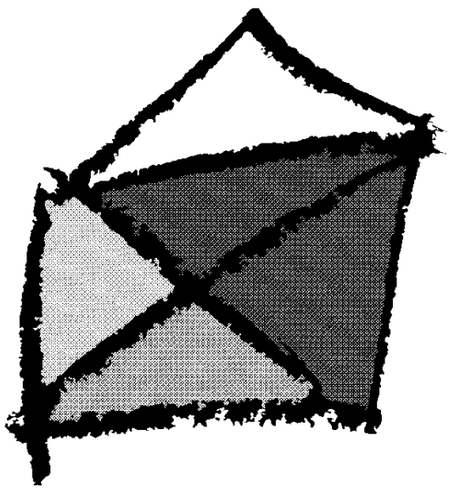
대상의 영예는 홍성군 갈산면 새마을부녀회장인 조병혜(趙炳惠·45·사진)씨가 차지했으며, 본상은 천안시 부성동새마을부녀회장 이희자(李喜子·58)씨 등 15명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받은 조씨는 16년동안 새마을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많은 불우이웃에게 쌀을 전달했고, 매년 경로잔치를 베푼 등의 공로이다.

/任度赫기자

서울리빙디자인페어

Seoul Living Design Fair 2002



2002 SEOUL Living Design FAIR

‘2002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인테리어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130여개 선두 기업들의 신제품과 인테리어 경향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특별행사를 관람하실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생활 인테리어 종합전시회입니다.

기간 | 2002년 3월 29일 ~ 4월 2일 (5일간)

장소 | 삼성동 COEX 1층 태평양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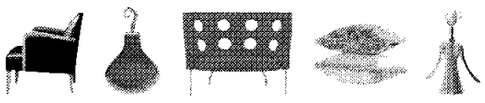
● 3월 29일 비즈니스데이, 3월 30일 ~ 4월 2일 일반인 관람

주최 designhouse INC. LG데코빌 COEX 주관 월간 행복이가득한집

후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朝鮮日報社 매일경제 KOSID

리빙디자인페어 참가 업종 및 업체

토탈업체 까사미아 데코전망좋은방 디자인해울 로빈힐 짐탐슨 (주)한샘인테리어 (주)한샘도무스 LG데코빌 JIB **가구** 경민대학가구산업개발원 꼬모빌리 나은컬렉션 남천양행 디사모빌리 리차드홈 몬타인터내셔널 바루디자인 분닥스탠리 심재록 써던퍼니처 (주)영림포르테 용산공예가구 디자인 이가통상(주) 이종명가구 쟈마트 제인인터내셔날 주식회사팀버택 코코모리빙 파넬 홍익대 화안가구 희훈아티퍼니처(주) e-라이브러리 **패브릭** 대군통상 동방실업 리브가텍스타일 비오밥 보문장식 아티잰 앙상블 우양알앤비 유앤어스 이화옷방 (주)윈데코 장엔터프라이즈 지오데코(주) 코센홈 코스모하우스 클롭 태광마텍스 포아르 홈꼬세르 DECO **소품** 그랑드아 나리홈콜렉션 대아상사 대진21 두성종이 디원코퍼레이션 디자인주 마요 미고갤러리 빌리등공예 베스하우스 세인트블레스 심지무역 (주)쏠라인터내셔널 씨-아트 아우라 아이비씨 아이앤비무역 아토아트 아트리움 엔토디자인 올데뉴크래프트 키아사아트앤크래프트 SOTA **공예품** 갤러리SP 나무와사랑 수디자인 한국아트체인 한솔데코 J&H International **테이블웨어** 강진철량옹기 광주요 쎄라데코 영암도기문화사업소 우담고덕우도자기 행남자기 RCR마케팅 **생활용품** 소나무 인터내셔널 이디오 알공구 청풍 한솔지테크 LG전자디자인연구소 **조명** 빛라이팅 셀인터내셔날 아티그램 이레무역 **마감재** 대동벽지 대현엠엔비 문스타일 미국임산물협회 에스디피씨 진건산업 페르고코리아(주) 한국하우톤 헤펠레코리아주식회사 홍성산업(주) **원예&조경** 그린아트 내이처스웍스 바이오매디아(주)



볼만한 특별행사 세가지

1 핀란드 디자이너 10인 초청 〈리빙룸〉 특별 전시 및 세미나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4월1일(월) COEX 컨퍼런스룸 402호 문의 02-2262- 5537

2 디자이너스초이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디자이너 5인 (참여디자이너 : 김주원 김치호 서상원 정규태 홍기원)이 다양해지는 리빙공간을 제안. 독신, 신혼, 일하는 주부, 50대 부부를 위한 개성있는 공간연출.

3 〈행복이가득한집〉 특별행사 ‘스마일 대잔치’ 〈행복이 가득한 집〉과 70여개의 참여기업이 마련한 푸짐한 정기구독 행사.

하나 특별할인권(특별행사 참여기업의 제품 최고40%까지 할인)
둘 행복작업복(에이프런과 주방장갑세트)
셋 행복요리무크지 또는 단행본(소박한 밥상) 중 한권

사이버전시 www.livingdesign.net
전시장 개장시간 오전10시~오후6시(토,일포함) 오후5시까지 입장. 미취학아동의 입장 제한.
위치 지하철2호선 삼성역 하차. 교통 혼잡으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잠실운동장 옆 탄천 주차장 이용. 무역센터 왕복 논스톱셔틀버스 수시 운행.
● 입장료 : 일반 5,000원, 단체 3,000원
● 단체관람(20명 이상)은 행사 주관사로 문의 바랍니다.
● 〈행복이 가득한 집〉4월호에는 무료초대권(1인1매 입장)이 실지, 별책부록 ‘인테리어 리빙 가이드 북’.

문의처 : 6002-8300~4

행복이가득한집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www.homeliving.co.kr • www.design.co.kr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